공장굴뚝 대기오염 자동측정 운영사례 발표

6월30일 공장굴뚝 원격측정운영시설 데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사례가 발표되고 우수 운영사례 선정사업장과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실시된다.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만의)은 6월30일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제3회 굴뚝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 우수운영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공장굴뚝 원격측정운영시설 데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사례를 발굴해 활용함으로써 사업장의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는 발표회에는 운영사업장 및 학계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우수 운영사례로 선정된 사업장과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한국중부발전 보령화학본부 등 8개 사업장에서 우수 운영사례를 발표한다.

TMS 업무 유공자 표창현황(2005)

표창자	훈격	비고
남해화학 환경팀장 김영대	환경부장관표창	호남권
KCC 여주공장 과장 신일호	환경부장관표창	수도권
환경관리공단 5급 송동훈	환경부장관표창	호남권
환경관리공단 5급 김인규	환경부장관표창	영남권
강원도청 환경정책과 6급 신홍철	환경관리공단이사장표창	중부권
포스코 광양제철소 반장 장우석	환경관리공단이사장표창	호남권
대상 전분당공장 과장 김현태	환경관리공단이사장표창	호남권
이엔코리아 대표이사 김수경	환경관리공단이사장표창	수도권

특히, 질소산화물 저감사례가 발표돼 사업장에서 활용하면 2007년부터 실시 예정인 대기오염총량관리제를 대비한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기획단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응 환경부문 주요 대책>을 주제로 기후변화협약 대응요건, 환경부의 추진성과와 추진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06/30>